

“유신 아래 스러져간 남편 원혼 달래주오”

중정 고문 숨진 고교교사 아내 진상규명 탄원

비판적 지식인들에게 유달리 엄혹했던 70년대 유신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그 후유증으로 숨진 한 고교 교사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는 외침이 16년 만에 그의 부인에 의해 제기됐다.

박정자(53·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주공아파트 112동 403호)씨는 15일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내 억울하게 용공 누명을 쓰고 숨져간 남편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씨에 따르면 유신 철권통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7년 6월 당시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상고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던 남편 김환진(당시 42살)씨가 어느날 중앙정보부 전주본실에 끌려가 이를 만에 돌아온 뒤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뒤인 78년 9월 숨졌다는 것이다.

정보부에서 돌아온 김 교사는 혹독한 고문으로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는 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으며 잔뜩 겁에 질린 채 “이런 사실을 발설하면 죽인다고 했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사흘 뒤 “용공교사이니까 사표를 내라”는 교육청의 종용을 받으면서부터는 더욱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고 박씨는 말했다.

박씨와 당시 김 교사의 동료교사들, 절친한 친구 이아무개(57·농업·김제군 금산면)씨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 교사는 수업시간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등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등 유신체제를 비판한 것이 발미가 돼 밀고를 당했다. 김 교사는 당시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의 서명까지 들어 있는 투서를 정보부에서 보았으며, 정보부쪽은 혹독한 고문을 가하면서 자신을 용공분자로 조작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가 한을 품은 채 1년 남짓 투병생활을 하다가 숨지자 비교적 풍족했던 가정 이 일시에 풍비박산났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박씨였지만 후환이 두려워 그나마 입을 다물어야 했다. 시집은 물론 친정 식구와도 거의 접촉을 끊다시피 했다. 남편의 병구완으로 가산을 탕진해 박씨는 그뒤부터 15년 동안을 식당 종업원과 과출부 등 막노동을 하며 다섯 남매의 생계를 이어왔지만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한으로 남아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87년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냈으나 군사독재라는 같은 뿌리여서인지 묵살당했다”고 울먹이는 박씨는 “문민정부만큼은 이 사건 진상을 제대로 밝혀 남편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누명을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주/장세환 기자